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왈, “대감께 여쭙 말미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하여 모양이 볼 것 없는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하며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 왈,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뇨?”

하고 서로 의혹해 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입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입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왈,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왈,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오라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A]

한데, 장사 왈,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리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라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왈,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령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석이로소이다.”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왈, “이 사람이,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충(駿聰)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왈,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왈, “파는 말입니다.”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B]

노복이 답 왈,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회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 팔던 사연을 낱날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왈, “삼만 냥을 받았으나 아지 못게라.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충마로 조선은 작고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왈, “너는 여자이나 명견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도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왈,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하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작자 미상, 「박씨전」-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이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끌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 (중략) …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섬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희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며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집안일 모두를 예전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머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작자 미상, 「조보」-
 * 조보: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관보.
 * 전관: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계화는 박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공은 말을 사려는 박씨의 말을 듣고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노복은 말을 사 오라는 공의 명을 받고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박씨는 노복이 사 온 말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노복들은 자신들이 돈을 감춘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
- ② 박씨가 ㉠에서 공에게 받았던 신뢰는 ㉣에서 타당성이 확인된다.
- ③ ㉡에서 노복들이 공에게 보인 신뢰는 ㉢에서 행해진 공의 꾸밈음을 거치면서 동요된다.
- ④ 노복은 ㉡에서 한 거래로 인해 ㉢에서의 행위를 해야만 했다.
- ⑤ 박씨가 ㉡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서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입자와 [B]의 공은 모두 팔린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 ② [A]의 노복과 [B]의 사신은 모두 말을 사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노복은 [B]의 사신과 달리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고 있다.
- ④ [B]의 사신은 [A]의 노복과 달리 상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 ⑤ [A]에서는 입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B]에서는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했다.

4. (나)의 '그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보를 읽고 전관이 될 사람을 짐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굵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안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서모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남편의 사후 집안일 모두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군.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재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공’이나 ‘노복’이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에서, 고소설의 여성 독자가 소망하였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그녀’가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가정의 용성으로만 발휘하였던 실재 여성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박씨’의 말을 ‘공’이 따르고, (나)에서는 ‘그녀’의 말을 ‘우하형’이 따르는 데에서, 남성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보국 충신이 될 만한 ‘박씨’가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하고, (나)에서 집안에 공로가 많았던 ‘그녀’가 ‘큰머느리’에게 가정을 맡기는 데에서,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지문에 대한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읽어 봅시다.

〈보 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제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 읽기 전 활동

「박씨전」과 「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씨전」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통해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여성을 제시해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박씨’와 ‘조보’는 둘 다 능력이 있지만, 전통적인 부인의 삶과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 봅시다.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왈, “대감께 여쭙 말미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하며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 왈,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뇨?”

하고 서로 의혹해 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임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임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왈,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왈,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오라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한데, 장사 왈,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리

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박씨’는 대감께 노복을 시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대감은 이게 무슨 소리가 싶었지만 ‘박씨’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즉시 허락해 노복을 시켜 비루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합니다. 노복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하며 종로로 말을 사러 갑니다. 말을 파는 사람은 닷 냥만 받겠다고 하며 삼백 냥을 거절하기에 노복들은 장사에게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옵니다.

② 사건 이해하기

우리는 <보기>에서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박씨’가 사 오라고 한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루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고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나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왈,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령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석이로소이다.”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왈, “이 사람아,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박씨’는 말을 보면서 노복들이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을 감추고 온 것을 알아냅니다. 신이한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노복들이 이백 냥을 감춘 것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노복들이 사 온 말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낸 모습입니다. 이것을 들은 대감은 ‘박씨’의 신명함에 감탄하고,

노복들을 불러 제대로 돈을 주고 오라고 꾸짖습니다. 노복들은 다시 장사에게 가서 억지로 이백 냥을 주고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박씨’의 능력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총(駿驄)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왈,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 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왈, “파는 말입니다.”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 왈,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희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 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왈, “삼만 냥을 받았으나 아지 못게라.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조선은 작고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왈, “너는 여자이나 명견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왈,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작자 미상, 「박씨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사건 연결하기

‘박씨’는 앞서 삼백 냥을 주고 사 온 말을 잘 길러 훌륭한 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이를 삼만 냥에 팔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박씨’가 말한 날에 사신이 오게 되고, ‘박씨’가 말한 대로 말을 삼만 냥에 팔게 됩니다. 대감은 이 모습을 보고 보국 충신이 될 여자라고 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가군(남편)이 과거에 급제해 나라를 돕고, 자신은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하는 것만을 바란다고 합니다.

‘박씨’의 신이한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루한 말을 삼백 냥에 사서 잘 길러 삼만 냥에 다시 팔아 집에 큰 이득을 보게 한 ‘박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기>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는 ‘박씨’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박씨’의 신이한 능력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었으면 됩니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박씨전」은 기출에도 종종 등장하는 작품이니 꼭 익혀둡시다.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이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굶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 (중략) … 봉급이 점차 붙어서 위로 섬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희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며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집안일 모두를 예전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며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작자 미상, 「조보」-

* 조보 :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관보.

* 전관 :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녀’는 비변사 서리에게 조보를 구입해 와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 능력을 통해 미리 손을 써 우하형의 봉급을 늘어나게 하고 순차로 승진하게 해 절도사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이용해 우하형의 앞길을 창창하게 만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우하형이 죽고 나자 ‘그녀’는 우하형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집안을 맡았지만 우하형이 죽은 뒤에는 자신은 서모에 불과하다며 큰며느리가 집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큰며느리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기어이 큰며느리에게 집안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확인했듯이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그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비범한 능력으로 자신의 남편인 우하형을 출세시키고 우하형이 죽자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서모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작품 총평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서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입니다. <보기>에서 ‘그녀’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기에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계획은 박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다.

→ 계획은 박씨가 대감께 여쭙 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공은 말을 사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공은 박씨가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는 제안을 듣고 허황하지만 박씨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즉시 허락했습니다.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③ 노복은 말을 사 오라는 공의 명을 받고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 노복은 삼백 냥을 주고 비루한 말을 사 오란 명을 듣고 대감이 무슨 이유로 비루한 말을 사 오라 하는지에 대해 의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명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복들이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박씨는 노복이 사 온 말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박씨는 노복이 사 온 말을 관찰하면서 노복이 이백 냥을 감추고 돌아온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⑤ 노복들은 자신들이 돈을 감춘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노복들은 자신들이 이백 냥을 감추고 돌아온 것이 들통나고 공은 노복들을 꾸짖으며 이백 냥을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고 합니다. 노복들은 말 주인에게 가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아 우리가 화를 입었다며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내당, ㉡ 종로, ㉢ 외당, ㉣ 종로, ㉤ 사신 오는 길

①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

→ ㉠에서 박씨는 공에게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의 명을 받은 노복들은 ㉡으로 가 말을 사지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을 감추어 돌아오게 됩니다. 박씨는 ㉢에서 사 온 말을 보고 노복들이 돈을 감추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박씨가 ㉠에서 공에게 받았던 신뢰는 ㉢에서 타당성이 확인된다.

→ 박씨는 ㉠에서 공에게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사 와 달란 요청을 하고, 공은 박씨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즉시 허락합니다. 박씨를 신뢰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 후 ㉢에서 이 말을 삼만 냥에 다시 팔게 됩니다. 박씨의 능력 덕분에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공의 신뢰가 타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에서 노복들이 공에게 보인 신뢰는 ㉢에서 행해진 공의 꾸짖음을 거치면서 동요된다.

→ 노복들은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란 공의 명을 듣고 의혹스러워 하면서 ㉡으로 가 말을 사게 됩니다. 공의 명령에 의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 공에게 신뢰를 보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④ 노복은 ㉡에서 한 거래로 인해 ㉢에서의 행위를 해야만 했다.

→ 노복은 ㉡에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을 감추고 온 거래 때문에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로 가 장사에게 이백 냥을 억지로 주고 오게 됩니다.

⑤ 박씨가 ㉡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서의 사건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 박씨는 노복이 사온 말을 보고 ㉡에서 노복이 이백 냥을 감추고 온 것을 알아내며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말 값을 삼백 냥을 주어야 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삼백 냥을 주어야 말의 값어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에서 말을 삼만 냥으로 팔기 위해서는 삼백 냥에 말을 사 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A]의 입자와 [B]의 공은 모두 팔린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 [A]의 입자는 말 값은 닷 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B]의 공은 말을 삼만 냥에 판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인물 모두 팔린 말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A]의 노복과 [B]의 사신은 모두 말을 사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 [A]의 노복은 말을 사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감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지만 [B]의 사신은 말의 값이 삼만 냥이라는 것을 듣고 바로 말을 사 갑니다. [B]의 사신은 말을 사려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③ [A]의 노복은 [B]의 사신과 달리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고 있다.

→ [A]의 노복은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의 명령에 의혹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B]의 사신은 [A]의 노복과 달리 상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 [B]의 사신은 상대의 의도에 의혹을 품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의 값을 듣고 바로 말을 사갔지 의혹을 품거나 의심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⑤ [A]에서는 임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B]에서는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했다.

→ [A]에서는 임자는 닷 냥을 받으려 했지만, 노복들은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어 돌아옵니다. 임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B]에서는 삼만 냥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사신은 그 값대로 말 값을 지불합니다.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값대로 사신이 지불한 것입니다.

4. (나)의 '그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조보를 읽고 전관이 될 사람을 짐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그녀'는 조보를 읽고 전관의 될 사람을 미리 짐작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 조보는 승정원에서 반포하던 관보입니다. 이는 공적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우하형의 이득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굵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 '그녀'는 청탁을 해 남편인 우하형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

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안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서모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그녀'는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의 주인이 큰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집안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녀'가 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남편의 사후 집안일 모두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군.

→ '그녀'는 우하형이 죽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셈이라며 집의 주인은 큰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자신은 서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후에 집 주인을 큰며느리로 바꾸려고 한 것을 보면 남편의 사후 집안일을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려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서모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에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재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에,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① (가)에서 '공'이나 '노복'이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에서, 고소설의 여성 독자가 소망하였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씨'는 말을 삼백 냥에 사 잘 길러 삼만 냥에 파는 능력을 보여 줍니다. '공'과 '노복'은 이러한 사실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박씨'를 통해 여성 독자가 소망했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나)에서 '그녀'가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가정의 융성으로만 발휘하였던 실재 여성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그녀'는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조보를 사 일을 헤아리고 전관을 예측해 '우하형'을 절도사에 이르게 만들

었습니다. 이를 보면 '그녀'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가정의 융성으로만 발휘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기>에서 말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실재 여성의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가)에서 '박씨'의 말을 '공'이 따르고, (나)에서는 '그녀'의 말을 '우하형'이 따르는 데에서, 남성애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의 '공'은 '박씨'의 말을 따라 말을 팔아 삼만 냥을 벌게 됩니다. 또 (나)에서 '우하형'은 '그녀'의 능력 덕분에 절도사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성이 남성애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것은 옳습니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는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보기>에도 그러한 말이 없고,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⑤ (가)에서 보국 충신이 될 만한 '박씨'가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하고, (나)에서 집안에 공로가 많았던 '그녀'가 '큰며느리'에게 가정을 맡기는 데에서,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에서 '박씨'는 공이 보국 충신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말에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의 '그녀'는 우하형이 죽고 난 후 '큰며느리'에게 가정을 맡기며 자신은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이는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